

정세교 감독 “오! 문희’ 최고그림은나문희·이희준모자케미”

“영화를 맛있게 찍었다고 생각해요. 관전포인트는 나문희와 이희준, 극 중 모자(母子)인 ‘오문희’와 ‘황두원’의 케미죠. ‘오! 문희’가 보여드리는 최고의 그림입니다.”

영화 ‘오! 문희’를 연출한 정세교 감독은 7일 뉴시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개봉을 해서 기쁘다”며 “관객들이 영화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봉한 ‘오! 문희’는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언니 ‘문희’(나문희)와 물불 안 가리는 무대보 아들 ‘두원’(이희준)이 범인을 잡기 위해 펼치는 좌충우돌 농촌 수사극이다.

수사극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 감독은 ‘오! 문희’가 유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캐릭터’의 힘이라고 했다.

특히 ‘문희’와 ‘두원’으로 분한 두 배우가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다.

“두 배우의 호흡이 영화를 끌고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이 모자(母子)를 보고 관객들이 내 모습, 내 주변의 모습으로 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문희 선생님은 처음 만났을 때 ‘오문희’랑 똑같았고, 이희준씨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죠.”

‘오! 문희’는 처음 제목 그대로다. 나문희를 염두에 두고 썼고, 캐스팅 1순위였다고 했다.

정 감독은 “나문희 선생님이 아니면 제작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제작사에 때를 썼다”며 “다행히 시나리오를 재밌게 보고 출연해주셨고, 영화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나문희와 첫 만남에서의 일화도 떠올렸다. 나문희는 정 감독에게 “감독이 놀이터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사극 내세우지만 그 속에 가족 이야기 담아”
유머·감동 두마리 토끼 가능했던건 ‘캐릭터’ 힘
제목 그대로 ‘나문희’ 염두두고 써…캐스팅 1순위
“다음 작품, 액션·스릴러 영화로 만나고 싶어”

“감독이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배우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죠. 그 안에 놀이기구는 배우들이 알아서 탄다”는 거였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준비를 잘해서 현장이 잘 돌아가면 연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해주시겠구나 생각했죠. 다행히 놀이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정 감독은 나문희의 강점을 묻자 “말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감독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분”이라고 극찬했다.

“극 중에서 ‘문희’의 치매인 모습과 아닌 때를 구분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선생님이 손녀인 ‘보미’와 같이 어리광을 피우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아들 ‘두원’이 밖에 나가 일하면 안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보미’와 개 ‘앤지’뿐이라며 제안하셨고, 저도 너무 좋다고 했어요.”

나문희는 극 중 트래क्टर 직접 운전하며 59년 연기 인생 처음으로 액션에 도전했다. “선생님이 면허증이 있다며 (트래क्टर를) 운전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해주셨고, 그래야 감정이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처음 대본을 보고 액션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선생님께는 열심히 뛰고 나무에 오르고 하는 게 모두 액션이었죠. 흔쾌히 해주셨고 영화에 그 모습들이 잘 나왔어요.”

‘오! 문희’로 스크린 첫 주연을 맡은 이희준에 대해선 집중력이 좋은 배우라고 칭찬했다.

“단역부터 시작해 주연까지 올라왔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잘 아는 배우죠. 집중력이 좋고, ‘노력파’라고 했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첫 만남에서 영화를 바로 찍자고 할 정도로 흔쾌히 나섰고, 저녁 자리에서 지나치듯 한 이야기에 바로 충성도에 혼자 내려갈 정도로 열정적인 배우죠. 누구보다 사투리 연습도 많이 했어요.”

정 감독은 초반에 두 배우의 호흡이 잘 맞을까 걱정도 했다. “제 방에 촬영 전 두 분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어느 날 희준씨 얼굴에 선생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촬영하면서 어느 순간 융합이 됐고 ‘이 둘은 모자(母子)일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죠. 현장에서 서로를 살뜰히 챙겼고, 모자 케미가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 배경은 충남 금산이지만, 사실 ‘두원’의 집 촬영지는 충남 서천이다.

시골집에 온 것처럼 정겨운 느낌을 주기 위해 소품 하나부터 신경 썼고 집 주변 텃밭의 무, 배추, 고추까지 스태프들이 세 달 전부터 키우며 집을 완성했다.

“금산은 전라도, 대전과 연결돼 있어 갈림길이 많아 수사극을 펼치는 데 적합하다고 봤죠. 그런데 CCTV가 생각보다 많았죠. 그래서 좀 더 한적한 곳을 찾았고, ‘두원’의 집이나 사건 발생 장소의 연결고리가 좋아 (서천을) 택하게 됐어요.”



특히 강원도 정선 출신의 정 감독은 자신의 추억이 담긴 영월의 할아버지 집을 떠올리며 공을 들였다고 했다.

그는 “실제 제 할아버지 집처럼 꾸며달라고 했다. 그래서 대청마루도 만들었고 ‘두원’의 집 대문과 벽도 다 부렸다”며 “시골의 정서가 제게 담겨 있다”고 웃었다.

‘오! 문희’는 정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당초 임팩트적으로 스릴러물을 준비했는데, ‘오! 문희’와 만나게 됐고 따뜻한 이야기에 끌렸다고 했다. 그는 “배우와 스태프 모두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해줘서 즐겁게 작업했다”며 “촬영하며 현장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극 중 기억이 감쪽감뻑한 ‘문희’에게

“엄니가 있어버려도 나는 엄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두원’의 대사를 가장 좋아한다며,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가족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즐겁게 또는 슬프게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웃어주셨으면 한다”며 “내 가족 이야기로, 엄마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음 작품으로는 액션과 스릴러 영화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액션이 가미된 영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고 싶죠. 액션과 스릴러라고 해도 그 속엔 휴먼이 있어야. 관객들에게 호응과 공감을 얻는 건 결국 휴먼과 드라마이지 않나 싶어요.”

뉴시스

블랙핑크 ‘HYLT’ 뮤비, K팝 최단기간 5억뷰 돌파

‘아이스크림’ 뮤비, 10일 만 2억뷰



그룹 ‘블랙핑크’가 ‘하유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HYLT)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에서 또 한 번 K팝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하유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3시 51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약 73일 만이자 5억뷰 달성 K팝 뮤직비디오 최단 기간 기록이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111일 만에 5억뷰를 기록한 뒤 이번 ‘하유 유 라이크 댓’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무려 40일가량 단축시키며 결국 새 역사를 썼다.

‘하유 유 라이크 댓’은 파워풀한 비트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높이 비상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많은 글로벌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노래는 2020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 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을 수상했다. 유튜브가 선정한 ‘글로벌 톱 섬머 송(Global Top Summer Song)’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도 같은날 오전 2시 6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2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공개된지 10일 13시간 만의 기록이다. K팝 걸그룹 최단 기간인 일주일 만에 2억뷰를 달성했던 ‘하유 유 라이크 댓’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아이스크림’은 강렬한 퍼포먼스와 걸크러시 매력의 대표 주자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특별히 선보인 귀엽고 상큼한 콘셉트의 곡이다.

별다른 무대 활동이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은 점을 떠올리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블랙핑크는 레이다 가가의 ‘사위 캔디’ 피쳐

링에 이어 이번 ‘아이스크림’을 통해 고메즈와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 다양한 글로벌 팬덤과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는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유 유 라이크 댓’은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과 미국 빌보드 핫100서 각각 20위, 33위를 차지해 K팝 걸그룹 최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또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아이스크림’도 최근 발매 직후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를 기록한 뒤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와 미국 톱50차트서 각각 4위와 3위까지 이름을 올려 기대감을 더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데뷔 4년 만인 오는 10월2일 발표되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더 앨범’(THE ALBUM)은 지난달 28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지 6일 만에 선주문량 80만 장을 넘어지며 K팝 걸그룹 역대급 음반을 예고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최근 ‘뚜두뚜두’와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가 각각 13억뷰, 10억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K팝 그룹 중 유일하게 10억뷰가 넘는 2편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블랙핑크는 현재 ‘봄바야’(9억2000만뷰), ‘마지막처럼’(8억6000만뷰)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들의 ‘유튜브 퀸’ 명성과 화려한 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리필터, 20일 첫 온라인 콘서트 개최

생중계 진행·실시간 채팅

국내 대표 1세대 록밴드 체리필터가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를 개최한다.

홍대 음악공연장 롤링홀 측은 8일 ‘체리필터’가 오는 20일 ‘롤링 25주년 기념 공연 : 체리필터 온라인 단독 콘서트’를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리필터는 콘서트에서 ‘낭만고양이’, ‘오리 날다’, ‘피아니시모(Pianissimo)’, ‘안드로메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실시간 채팅을 통해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

래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롤링홀 개관 기념 공연은 매년 1~4월까지 개최되는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초 개최된 ‘롤링 25주년 기념 공연’도 매진 행렬이었지만, 2월 급격하게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개월 중단됐다.

김전성 롤링홀 대표는 “이번 공연은 개관 25주년을 맞은 ‘롤링홀 개관 기념 공연’이자 ‘체리필터’의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중단됐던 공연의 마



지막을, 공연장의 처음을 함께한 체리필터와 그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체리필터, 20일 첫 온라인 콘서트 개최

생중계 진행·실시간 채팅

국내 대표 1세대 록밴드 체리필터가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를 개최한다. 홍대 음악공연장 롤링홀 측은 8일 ‘체리필터’가 오는 20일 ‘롤링 25주년 기념 공연 : 체리필터 온라인 단독 콘서트’를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리필터는 콘서트에서 ‘낭만고양이’, ‘오리 날다’, ‘피아니시모(Pianissimo)’, ‘안드로메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실시간 채팅을 통해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

래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롤링홀 개관 기념 공연은 매년 1~4월까지 개최되는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초 개최된 ‘롤링 25주년 기념 공연’도 매진 행렬이었지만, 2월 급격하게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개월 중단됐다.

김전성 롤링홀 대표는 “이번 공연은 개관 25주년을 맞은 ‘롤링홀 개관 기념 공연’이자 ‘체리필터’의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중단됐던 공연의 마



‘미스터트롯’ 톱6, ‘미스터트롯2’ 본격 영입

45세 미만 여성 누구나 지원 가능...3차모집 오는 14일까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참가 독려 영상을 선보였다.

‘미스터트롯2’ 제작진은 8일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 톱6의 ‘본격 영입’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톱6는 ‘미스터트롯’에 도전했던 순간과 이후 꿈이 현실로 뒤바뀐 기적 같은 나날들에 대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첫 무대를 마치고 느꼈던 감정을 내비친 뒤 “1라운드를 끝낸 그 순간부터 나오길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여성 여러분의 차례입니다”라는 문구 뒤로 영탁은 “드라마 속에 있는 기분, 꿈속에 있는 기분”이란 말로,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란 말로 소회를 밝혔다.

정동원은 “정말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김희재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라고 ‘미스터트롯’ 이후 느낀 기쁜 감정을 내비쳤다. 장민호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믿기지 않

을 때가 있다”며 “너무 전과 이후에 삶이 다르다 보니까”라는 말로, 속내를 풀어냈다.

더욱이 영탁은 “할까 말까 고민할 땐 하는 것”이라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가를 독려했다. 이찬원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전하라”고 지원을 권했다.

임영웅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다면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미스터트롯’에 많이 지원하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의 결정을 응원했다.

제작진은 “미스터트롯 톱6가 ‘미스터트롯2’ 홍보 요정들을 자처해 열렬한 응원을 전하며 차세대 여성 트롯 가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며 “톱6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원과 응원에 어긋나지 않게, ‘민보트(민고 보는 미스&미스터트롯)’라는 수석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미스터트롯2’ 오디션은 트롯을 사랑하는 만 45세 미만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 지원서 작성 후 자기소개와 함께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5분 내외 영상을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 3차 모집은 14일까지다.